

보도 해명 자료

(2010.9.7)

수 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 목 : 러 천연가스 '북 경유' 무산은 사실과 다름

※ "남북 단절에 러 천연가스 '북 경유'도 무산"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요지 (9.7, 경향신문)

-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실무 협의를 통해 PNG 대신 LNG나 CNG를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음
- 양측이 경제성이 높은 PNG를 포기하고 LNG나 CNG로 전환한 것은 정치적 변수와 예정된 공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
- 10일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형태 및 도입물량에 대해 러시아 측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음
- 도입형태에 대해서 현재 실무협의 중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문의 :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김용래 (02-2110-4894)